

참교육과 크리스찬 교사

True-education and Christian Teacher

박진경

요즈음 우리의 교육제는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위기에 처한 학교교육을 그대로 두고 볼 수 만은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획기적인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들이 드높다. 그 중에서도 교사들 스스로의 힘으로 모순된 학교교육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를 내세우며 결성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자못 지대하다. 이와 함께 시작된 교원노조 운동이 순수한 교원운동의 차원이나 교육개혁의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러나 전교조에서 내세운 참교육의 의지는 확실히 높이 살 만한 것이다.

참교육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쉽게 말하면 참교육이란 참된 교육, 즉 교육다운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키우는 교육이라야 참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의미를 지닌 삶이다. 삶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치를 분별할 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있게 구성할 줄 아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 교육이

할 일이다.

현 교육의 문제점들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이다.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을 가진 이 말은 교육의 목적이 이웃과 사회에 유익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이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이와는 매우 동떨어진 성적 위주의 경쟁교육이 되고 말았다. 이웃과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을 배우기 보다는 자기 혼자만을 위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현실인 것이다. 또한 삶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입신출세를 위한 교육이 되고보니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고 있다.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세계의 다른 민족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머리도 좋은 편인데다 학업에 소모하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많고, 예능적인 재능도 뛰어난 편이라고 인정받으며 지구력도 강하다고 평가

되고 거기다가 부모들의 교육열과 자녀교육을 위해 쏟아내는 사교육비의 액수도 어느 나라 못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너무도 많은 학생들이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 알게 모르게 일종의 정신질환에 시달리거나 적지 않은 수가 매년 자살을 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유네스코 등의 기관에 의해 평가된 바에 의하면 중고등 학생들의 학력평가의 결과가 최하위에 가깝다고 하니 확실히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교조가 참교육의 새 가지 측면으로 제시한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교육은 현재 우리 민족이 처한 역사적 시점에서 볼 때 매우 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것이라 하겠다. 전교조 자료집인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는 참교육"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참교육이란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를 키우는 교육이며 개개인의 생명력, 창조력을 가꾸고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고, 소수의 능력 있는(?) 학생들 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육입니다. 또한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길을 넓여가기 위한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와 태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입니다. 결국 참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지금이나 사회인이 되어 있을 미래에나,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어갈 수 있게 하려는 교육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에서의 생활과 공부를 통해 이 땅의 우리 민족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 올바른 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실천할 줄 알게 되어야 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1)

또한 전교조에서 참교육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제시한 잘못된 교육제도와 입시제도, 대통령과 문교부의 지나친 교육권 독점, 잘못된 교과서 제도와 교육내용에 대한 지나친 통제, 궁핍한 교육예산과 형편없는 교육시설,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인 교육행정체제, 교사와 학부모의 서먹서먹한 관계, 학부모들의 편협한 가족 이기주의 등은 현재의 교육상황 중에 문제점들을 잘 파악한 것이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것들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 외적인 문제들을 지적한 것이고 교육을 행하는 당사자들인 교사 자신들의 문제점들은 제외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상 참교육의 주체는 교사 자신이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은 잘못된 교육이념이나 목적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다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사회가 보이지 않게 중요시하는 가치 등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전교조와 같은 기관의 조직을 계기로 교육의 현장에 산적해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온 국민이 함께 생각해보고 해결점을 모색해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본다. 물론 이런 계기를 통해 학교교육을 특정정권의 이데올로기를 주

필자소개



필자는 서울 사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한 후 4년간 중등교직에서 근무하였으며, 미국 Wheaton Graduate School에서 Educational Ministries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영남신학교에 출강하고 있으며, 역서로는 <기독교대학의 이념>,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의력> 등이 있다.

입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됨도 재삼 되새겨 보아야 한다.

요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의 고질병 중의 하나는 교사가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적 풍토이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사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견해를 가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교사들 자신을 마저도 자신들의 역할에 관하여 그렇게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질주의 사회가 가지는 가치관의 문제 이상으로 교사들이 자신들을 부르신 부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무지하다. 요즘 학생은 많되 제자는 적고 교사는 많되 스승은 적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물질위주의 사회가 되어도 교사의 직무가 지식판매업일 수는 없다.

교육은 지식과 같은 비인격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 인격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보수와 높고 낮음이 하는 일의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다. 교사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비하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정신적으로 자유롭고 도덕적으로 떳떳하며 사회적으로 품위를 지킬 때 자생적인 교권이 서는 것이다. 사실상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는 것은 교원노동운동을 통해서 뿐 아니라 교육과 교육자에 대한 가치관을 재정립함으로써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교직이 전문직이 되기 위하여 필수적인 자율성의 문제는 교육자들 스스로가 먼저 찾아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교육방법에도 역시 문제가 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신의 주변세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아동들이수록 특별히 이러한 욕구가 강하다.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그것을 그저 쑤셔넣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적 호기심을 일깨워주고 그 폭을 넓혀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나 국가가 가치롭다고 여기는 문화적 유산이나 고도의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 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이 필요하다. 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이 효과적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입식 교육으로만 훈련되어진 사람은 사고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틀과 내용이 제한되어 지극히 수동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

예를 들면 주입식의 지식 습득과 선다형 문제

에 익숙한 학생들은 어떤 시를 읽고 난 후의 느낌조차도 일률적이다. 그들이 생각도 하기 전에 이미 정답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다른 느낌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아무도 새로운 이해와 감상력을 기를 것을 자극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훈련된 사람에게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길 기대하거나 삶을 가치있게 구성하길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성적과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 역시 큰 문제이다. 과도한 경쟁은 좌절 경험을 가중시킨다. 어차피 정해진 수의 합격자들만을 위해 교육하는 것이나 정해진 수의 자리를 놓고 모두에게 승자가 되라고 다구치는 것은 시작부터가 모순 덩어리이다.

학업성적만이 지상목표라면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설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인간의 본성으로써는 측정할 수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학생들의 키와 몸무게는 잴 수 있으나 이해하고 감상하고 성취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려고 고안된 측정제도 자체에 너무 큰 신뢰를 두어서는 안된다.²⁾ 학업성적 하나만으로 그 학생의 전 모습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이다. 졸업을 못할 정도의 학생 중에 에디슨처럼 훌륭한 발명가가 나올 수도 있고 심한 장난꾸러기 중에 우리들의 목사님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어쩌면 교사가 해야 할 일은 학업 성적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재능 분야를 발견하고 계발시켜주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참교육의 이론적 배경

전교조가 내세우는 소위 참교육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보다도 브라질의 교육가였던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의 저서, <피압박자의 교육(Pedagogy of the Oppressed)>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인간화(humanization)'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교육도 이러한 관점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가 말하는 투쟁은 인간 해방, 즉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것이며 이것은 피압박자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쟁취하게 된다. 이기적인 압박자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어 피압박자들에게 거짓된 관용으로 베푸는 교육은 압박을 지속시키고 체제

화하는 교육일 뿐이라고 한다.³⁾ 그러나 그의 이론도 한계점에 부딪치는데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생기는 불가피한 것으로서 실제로 압박자들이 투쟁에 의해 현재의 압박자들을 몰아낸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결국은 유사한 또다른 압박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은 교육방법론적 입장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즉 은행저금식 교육과 문제제기식 교육의 개념 및 그가 말하는 인간성 회복과 자유의 실현을 위해 제시된 대화에 의한 교육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은행저금식 교육이란 학생들은 그저 생명없는 그릇처럼 가만히 앉아서 교사가 무엇인가 채워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교육을 가리킨다. 이러한 교육에서 학생들은 수동적인 대상일 뿐 아무런 창조력도, 변화에의 의지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이며, 학습의 내용은 교사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들이 우선 순위를 차지하게 된다. 만일 교사가 인간 본성과 그들의 창의력에 대해 깊은 신뢰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학생들을 이처럼 '텅빈 정신'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의사소통을 통해 현실에 대한 참된 사고와 행위를 자극하는 문제제기식 교육을 택하게 될 것이다.⁴⁾

교육에는 인류의 유산을 보존, 전승하는 자원이 있다. 이러한 인류의 문화적 유산은 곧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교육이 단순히 축적된 지식의 주입이나 전달이라고 오해될 우려를 안고 있다. 프레이리가 지적한대로 교육은 가방 속에 물건을 차곡차곡 넣어가듯 지식을 넣어주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과정은 알고 깨닫는 인지적 작용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며 인지는 현재의 능동적 경험에서 생겨야 한다. 앞에서 말한 과거의 유산은 현재의 생생한 경험과 만나게 될 때 그 의미와 가치가 살아난다. 교사는 권위로써 지시하는 위치보다는 학습이 촉진되도록 학생들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하여 단순히 학생들의 흥미만을 만족시켜 주거나 현실에 적응하는 법만을 가르쳐 주어서도 안된다.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의식 속에서 현실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다시 창조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일깨워주고 길러주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방법에 있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명령, 교훈, 주입 등으로 일관하는 종래의 교육방법으로서는 학생들에게 책임있는 주체자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학생과 교사, 또 학생들 상호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교류를 통하여 학생들이 그들의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참교육이 일어날 수 있다. 요즈음 유치원 교육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활동중심 교육이나 사회교육 방법으로 많이 채택되는 토의식 교육, 프레이리가 제시하는 대화에 의한 교육 등, 학습자들의 활동이 주류를 이루는 형태 뿐 아니라 지식의 전달이나 정보의 전달을 위한 교육의 경우에도 질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하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미래를 향한 vision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뿐 아니라 현재의 경험을 가치있게 구성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차원이다. 개인의 가능성에 대한 신념과 더 나은 세계를 구축하려는 의지와 사회적 필요에 대처하도록 준비하는 노력은 성장과 변혁의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육의 문제는 미래의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강박감 속에 학생들을 몰아 넣고 성장기 학생들의 발달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특성 및 그 외 개인적 필요와 능력들을 무시한 채 달려가는 데 있다고도 본다. 교사나 부모의 선택을 강요하는 자세는 학생이나 자녀의 삶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라기 보다는 교사나 부모의 입장을 먼저 내세운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교사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시켜 주어야 하며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삶 속에서 책임있는 주체자가 되도록 그들의 의식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참된 가르침의 목적은 진리가 학생들의 삶에 적용되어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가르침이란 삶과 무관한 사실들을 나열하고 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 교사로서 교육에 임하는 자세

참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크리스찬 교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면 제일 먼저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도 없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 교육에서도 사랑은 가르침의 은사 이상으로 중요하다. 사랑은 교사로 하여금 학생의 기쁨에 같이 기뻐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의 아픔에 같이 울 수 있게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돕는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사의 역할은 아마도 씨를 뿌리고 싹트기를 기다리고 그 싹이 자라서 결실하기를 기다리는 농부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교육을 하는 참된 교사가 되려고 한다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그들의 생명과 삶을 사랑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 자신의 생명과 삶의 귀중성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교사는 이 사실을 가르쳐줄 수 있어야 한다. 입시와 성적 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지적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여 소외당하기 쉬운 학생들일수록 더욱 이런 관심을 필요로 한다.

"너의 생명과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따라서 너의 삶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란다." 하고 격려해줄 수 있는 교사라면 좌절감에 빠지기 쉬운 많은 학생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교육체도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올바르게 긍정적인 자아관을 가지지 못하고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할 염려가 크다.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려하지도 않을 것이며 더구나 이웃과 삶을 나누는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삶으로써 진리와 사랑을 나눌 수 있으려면 자신과 이웃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일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자아존중

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속감과 능력감과 가치감의 세 영역이 잘 개발되어야 한다. 소속감이란 어떤 한 개인이 한 집단의 부분이 되고 집단의 다른 구성원에 의해서 수용되며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며 집단내 상호간의 애정과 보호를 통해 형성된다. 또 사람은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취하는가에 따라 자신을 평가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형성된다. 교사는 여러 방면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이를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좋은 사람이다." 또는 "나는 한 톨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다." 등과 같은 자기평가와 관련한 가치감은 실제로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러므로 교사가 해주는 한 마디의 격려나 질책은 학생의 일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치감은 상대방이 베푼 사랑에 의해 인식된다. E. Fromm은 "사랑이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행동적 관심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결국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 있다고 느낄 때 자기를 사랑한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많은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특히 크리스찬 교사들은 자라나는 시기의 아동들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는 가르침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지 않고서도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사의 일은 교육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서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종류의 일이다. 교육은 그 대상이 지식이라는 비인격체가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일 자체가 본질상 그 수행의 즐거움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특별한 재능을 개발시키며, 사고를 자극하고 학습에 흥미를 유발시켜야 하는 사람이 그런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다면 사실상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가르침이란 단순한 작업이나 직업, 혹은 과업이나 투쟁이기 보다는 열정이어야 한다. 즉

가르침 자체를 사랑해야 한다.⁵⁾

크리스찬 교사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면서 교육자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다만 교사일 따름이고 주일날 주일 학교에서 봉사할 때에만 그리스도인 교사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크리스찬 교사는 교육자로서 그가 하는 모든 활동이 기독교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교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는 자답게 수업을 준비하고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학생들을 가르칠 책임을 선한 청지기로서 수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만일 학생들이 학습을 잘 하지 못하면 수업방법을 비롯하여 교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를 평가해 보아야 한다. 요즘 교사들이 다른 잡무 때문에 수업 준비를 할 시간이 거의 없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렇다면 방학 동안의 많은 시간들을 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성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보다 잘 가르치고 이끌 수 있을까 하고 늘 고심하는 교사라야 한다. 경제적인 대우가 적다고 하여 그 대우 만큼만 일하려고 한다면 참된 교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맺는 말

일반적으로 신명기6:4 로부터 시작하는 쉼마를 기독교교육의 성경적 근거로 제시한다. 비록 이 말씀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교사들에게도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

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먼저 부모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하시는 말씀이다. 참된 인간이 되도록 가르치는 참교육을 하려면 교사들 스스로가 먼저 참된 삶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민주주의를 가리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했다. 이에 견주어 참교육은 '교사들의, 교사들에 의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참교육을 실현하는 주체자는 교사이지만 그 관심은 학생들에게 기울어져야 한다. 교권운동도 이런 차원에서 발전되어야 한다. 학생들을 참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과 인격과 성장과 삶 전체를 귀중히 여기고 그것들이 바람직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일 때 참교육은 가능하다.

참고도서

1.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는 참교육, 서울, 1989, pp.6-8
2. Norman E. Harper, 현대 기독교교육, 이 승구 옮김, 엠마오, 서울, 1986, p.29
3. Paulo Freire, 민중교육론(Pedagogy of the Oppressed, 피압박자의 교육), 성 찬성 옮김, 광주, 1986, pp. 27-39
4. Paulo Freire, 위의 책, pp.57-117
5. Norman E. Harper, 위의 책, pp.173-174

(본 글은 1990년 1월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서 있었던 대구교대 C.C.C. 동계 수련회에서 발표했던 강의를 일부 수정한 것임)